

걷기·맛 특화...목포 글로벌 관광도시로

다음달 5일 평화광장서
국제 관광거점도시 선포식
1000만 관광객 유치 기대

목포시가 다음달 5일 평화광장에서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를 선포한다. 목포시는 이날 세계적 관광도시를 향한 힘찬 출발을 대내외에 알리는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선정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광목적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과 기념식 주제 공연, 비전선포식 등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27일 한국관광공사와 국제관광거점도시(부산) 및 지역관광거점도시(목포, 전주, 안동, 강릉)는 합동으로 경북 안동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관광공사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음식문화, 섬 등 지역특색과 자원을 중심으로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0. 5. 27. (수) 17:00 안동시청 청백실

지난 27일 경북 안동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목포·전주·부산 등 5개 지자체가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수도권과 제주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시장을 탈피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부터 5년간 관광인프라 개선 사업 등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목포시는 100년의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한 근대 역사문화공간을 세계적인 도보여행의 메카로 만든다. 또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 목포 9미(味) 글로벌 라이제이션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맛의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제부와 관광공사, 선정 도시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목포가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기자 노트

목포시의회가 민주당 거나



박종배 제2사회부 부장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29일 치러질 민주당 내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지역위원장의 특정 후보 내정설이 돌면서 출사표를 던진 의원 간 내용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포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회 정원 21명 중 15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후반기 의장이 될 공산이 매우 높다. 이런 호기를 틈탄 후보들의 자라다툼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더구나 의회 안팎에서는 지역위원회가 의장단 선거에 깊숙이 개입해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총성과도 비례해 자리 안분이 이미 정리가 됐다는 말까지 돌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경선 결과가 소문과 일치하는 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며칠 전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반박 성명이나 당 차원의 정보보호 요구 등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아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위원회 개입설의 진위는 분명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지방위원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지역위원장의 개입이 '당명'으로 둔갑해 특정 후보 쟁기로 변질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상사가 초래될 게 자명하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해 엄정 중립 입장"이라며 "당론 위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론 위배가 '상명하복'을 의미하는 말인 지 모르겠다. '밀실 야합'의 졸렬한 시의회가 될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바라는 것은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가 엄정 중립의 입장을 지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꼭 될 사람이 되는 그런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리에 연연해 총성해야 할 대상이 시민이 아닌 다른 곳이 되선 안 되기에 더욱 그렇다. 시민을 충직하게 섬기는 시의원 본인의 임무에 충실 할 때다. pjb@kwangju.co.kr

영광 향화도항, 관광레저 마리나항으로 개발한다

정부 '마리나항 기본계획' 반영
TF팀 구성 단계별 육성안 수립

영광 염산 향화도항이 해양레저 마리나항만으로 개발된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염산면 향화도항이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2020~2029)에 최종 반영됐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영광군은 향화도항을 마리나 중심의 허브공간 조성하고, 목포·여수 등 거점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한다. 또 요트대회, 마리나축제를 개최하고 섬관광과 연계한 마리나항만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영광군은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바다드림팀을 구성·운영하고, 민간투자 기회를 확대해 마리나 산업



영광 염산 향화도항이 해양레저 마리나항만으로 개발된다. 사진은 칠산타워 일몰. <영광군 제공>

을 육성하기로 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향화도항이 마리나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된 만큼 교수·항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바다드림팀 분과위를 운영,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해양레저 관광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훈 기자 jylee@kwangju.co.kr

'가고 싶은 섬' 신안 우이도,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90억 들여 2022년 말 완공 목표
주민 교류 증진·관광 활성화 기대

동양 최대 모래언덕 등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 마을간 연결도로를 개설한다.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우이도는 섬내 마을간 연결 도로가 없어 어선으로 왕래하는 등 '섬 속의 섬'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신안군은 90억원을 들여 우이도 1리와 2리 마을을 잇는 길이 3.29km, 폭 3m 도로를 지난해 12월 6일 착공, 오는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이도 주민들은 마을을 오고 가려면 산길을 장시간 걸어가거나 어선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안고 있어 도로개설이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이었다. 우이도에는 1리 진리마을에 64세대 105명, 2리 돈목·성촌마을에 44세대 55명이 살고 있다. 면출장소와 보건진료소, 파출소 등 주요 기관이 1리 진리마을에 집중돼 있지만 2리 돈목·성촌마을과 연결 도로가 없어 오로지 뱃길로만 이동이 가능했다. 지난해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이 도로가 개설되면 관광객이 더 모여들 전망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3년 두 마을의 연결 도로를 개설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도로는 관련 부처·기관의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 도로개설



동양 최대 모래언덕 등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돈목해수욕장과 모래언덕. <신안군 제공>

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는 노선으로 개설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국립공원구역 안에서 제도·환경적 제약을 감내하며 우이도를 지켜온 주민 간의 교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우이도의 또 다른 비경과 매력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해제 도리포 농수특산물 판매장 운영

특산물 활용 양파빵·농계빵 첫 선

무안군은 최근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에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무안군은 도리포에 32㎡(10여 평) 규모의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50여 종류의 지역 농수특

산물을 판매, 지역주민의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 특산품인 양파와 고구마 등을 재료로 직접 개발한 양파빵·고구마빵·농계빵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무안 해제 도리포 농수특산물판매장. <무안군 제공>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세 미만 5세 이상 저소득층 100만 명 지원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까지 대출
- 50세 이상 초·중·고생 자녀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지원
- 3~4세 미만 5세 이상 저소득층 100만 명 지원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까지 대출
- 50세 이상 초·중·고생 자녀 지원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	---------------	---------------	----------------	---------------	---------------